

성패는 하늘에 맡기고, 그저 눈앞에 놓인 공부에 최선을 다한다



백 원 중

- (서울)경북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2022년도 5급 공채 일반행정직 합격

I.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2022년 5급공채 일반행정(전국) 합격자입니다. 진입 초기에 아무런 정보가 없어 막막할 때 합격수기를 쌓아놓고 합격자들의 공부방법을 훑으며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합격하게 되면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합격수기를 쓰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이번에 연이 닿아 고시계 한 칸에 저의 합격수기를 적을 기회가 생겨 정말 기쁩니다.

막상 합격수기를 쓰려니 부끄러워서 기억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수험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5년으로 그리 짧은 편은 아니고, 매우 좋은 성적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저의 경험과 짧은 생각을 가능한 그대로 털어놓았으니 합격자라는 이름에 가려진 슬한 실수와 모자람까지도 여러분의 반면교사가 되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I. 시기별 공부

1. 2017.6. ~ 2018.6. (1년차)

학군장교로 2년 4개월간 군생활을 하고, 전역 직전에 5급공채를 보기로 결정

했습니다. 처음 풀었던 피셋이 40점대 점수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점수를 올리기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한림법학원에서 부라부라 인강을 들었고 남은 시간에는 경제학과 행정법 예비·1순환 수업을 들었습니다. 피셋 강의를 모두 수강하고 나서는 토익을 준비했습니다. 연말에는 헌법 강의와 강사들의 실전모의고사(모강)를 실강으로 수강하였고 남은 시간에는 행정학 예비·1순환 인강을 수강했습니다. 18년도 1월, 2월에는 정치학 인강을 들었으며 그 외의 시간에는 1차과목에만 집중했습니다. 18년도 3월에 본 1차 시험에서 아슬아슬하게 합격했습니다.

3월부터는 학원 3순환 일정을 따라갔습니다. 이 기간에 처음으로 답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강의를 듣거나 문제를 풀 때 대충 넘어갔던 기초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답안을 쓸 때 비로소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 수업에서 구성된 답안작성 스터디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가며 공부했습니다. 이어지는 다른 과목 3순환기간에도 이 스터디원들과 함께 답안작성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5월부터는 주말마다 선택과목인 정책학 인강을 들었는데 주중에 밀린 복습을 주말에 모두 처리하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수업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18년도 시험에서는 모든 과목에서 면과락 수준의 점수를 받고 탈락했습니다.

2. 2018.6. ~ 2019.6. (2년차)

2018년 경제학 1문을 거의 풀지 못했는데, 시험장을 나서면서 수업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떠올라 다음번엔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내심 들떴었습니다. 하지만 해설

강의를 들으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강사의 설명을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백지예다가 그 논리를 스스로 펼쳐나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고득점 대신 논문과목에서 점수를 따자고 생각했습니다. 18년 7월은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가 8월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1차 공부에 비교적 여유가 생겼기에 남은 시간에는 경제학 문제풀이 및 행정학 인강, 정치학 답안특강을 수강했습니다. 지금도 후회되는 것을 딱 하나 고르라면 이 시기에 경제학 예비·1순환을 다시 수강하지 않은 점입니다. '해설을 읽으면 이해는 되니까 기초 강의를 듣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으로 그때그때 부족한 부분을 혼자 메꾸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부는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도외시하는 어설픈 공부로 이어졌습니다.

12월에는 1차공부 비중을 높여나갔고, 1월부터는 헌법 공부시간을 더했습니다. 2차과목 지식이 휘발되지 않도록 2월까지 틈틈이 2차공부도 병행했습니다. 그렇게 3월에 시험을 보고 커트라인에 걸쳐 1차를 간신히 합격했습니다.

3순환 기간에는 답안작성 스터디 여러 개와 실강을 들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6월에 치른 2차 시험에서 경제학 1문을 풀지 못해 통째로 백지로 냈고, 처참한 점수와 함께 경제학 과락으로 탈락했습니다.

3. 2019.6. ~ 2020.8. (3년차)

예상이야 했지만 그래도 실제로 과락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의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같은 기간 공부한 스터디원 한 명이 경제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합격한 것을 보며 충

격은 배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경제학 고득점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행정법을 제외하면 꾸준히 점수가 올랐기 때문에 해오던 대로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2차 점수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늘어져 허송세월을 보냈고 9월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은 강의 대신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읽고 서브노트를 만들며 기초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1월부터는 스터디를 이용해 1차와 2차 공부를 병행하였습니다. 행정학과 정치학은 12월 중 서브노트를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간 배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0년 1, 2월에는 경제학 기출 문제를 푸는 강의를 들으며 답안작성 연습을 했습니다. 행정법 암기는 항상 병행했고, 논문과목은 만들어둔 서브노트 자료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2020년 2월, 1차 시험을 5일 앞두고 코로나 19로 인해 시험이 연기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다 싶어 3, 4월에는 1차 공부 비중을 줄이고 경제학과 행정법 공부 비중을 높였습니다. 5월에 본 1차는 합격선을 충분히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2차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경제학, 행정법 3순환 기간에는 답안특강이나 모아둔 자료를 읽는 등으로 논문과목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시험 결과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학과 정치학은 점수가 올랐지만 여전히 합격자 평균에 미달이었고, 행정법과 행정학 점수는 오히려 하락했던 것입니다.

4. 2020.8. ~ 2021.7. (4년차)

고시를 그만둘까 고민했습니다. 공부를 더

한다 해도 지금보다 더 잘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도 2020년 시험에서는 막히는 부분 없이 웬만큼 써냈다고 생각했는데 기대한 점수보다 낮게 나와 실망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거듭 고민한 끝에 다시 공부에 매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첫 번째, 2차시험 성적이 합격자 평균보다 2점 모자랐는데 이 정도 점수차이면 그래도 극복해 볼 만하다는 근거없는 자신감이 생겼으며 두 번째, 다른 길을 선택하더라도 만만찮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9월부터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2월까지 온전히 2차 공부에 매진했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피셋 공부를 시작하며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2월 중순까지는 2차 공부를 병행했으며 3월에 있는 1차시험에서 턱걸이로 합격할 수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3순환 기간 동안 생활스터디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답안작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하루에 최소 100점, 많으면 200점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 스케줄을 짰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고배를 마셨습니다. 경제학은 합격자 평균에 근접한 수준이었으나 행정법과 행정학, 정치학에서 고득점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5. 2021.7. ~ 2022.6. (5년차)

2021년 시험 결과 역시 합격자 평균보다 2점가량 모자랐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기대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나 정치학에서 크게 미끄러졌고, 행정법과 행정학도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논문 과목에서 특정이론을 정확히 써내지 못했는데 이 약점을 해소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다. 그래서 큰 고민 없이 재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성적 발표 후 2차시험 과목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경제학과 행정법은 고시촌에서 과외의 도움을 받았고, 행정학은 예비·1순환으로 기초를 정비했으며 정치학은 답안특강을 듣고 단행본을 읽으며 이론과 논점을 정리했습니다. 12월쯤부터 스테디를 구해 1차시험 공부를 시작했고, 2022년 1월부터는 1차시험 공부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2월에는 오전·오후에 1차시험 공부를 하고 저녁에 2차시험 공부를 하되 답안특강이나 과외를 받는 날에는 2차과목 복습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3월에 1차시험을 보았고 예상 합격선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아 즉시 2차시험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1차시험 직후 베리타스 스파르타반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결성된 스테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든 밴드인증 스테디를 이용해 답안작성을 연습했습니다. 3순환 수업은 모두 실강으로 참여하되 모의고사만 쓰고 수업은 인강으로 듣거나, 강의실에서 수업과 무관하게 공부를 하다가 중요하다 싶은 부분만 따로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논문 과목은 꾸준히 그동안 배운 이론들의 내용과 논리구조, 키워드를 정리·암기했습니다. 정책학은 5월경부터 기출답안을 작성하며 내용을 암기했습니다. 6월에 2차시험을 치르고, 9월까지 쉬다가 합격문자를 받았습니다. 학교 고시반에 연락해 면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대비를 했고 결국 오랫동안 바라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Ⅲ. 과목별 공부방법

1. PSAT

저는 피셋형 인간과는 거리가 멀었을 뿐더러 군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와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피셋에 익숙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고시에 뜻을 품은 시점에는 나눗셈으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통분같은 것들이 잘 기억나지 않아 따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디를 통해 문제 풀이방법을 공유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료해석에서 계산을 줄이는 방법, 상황판단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부분에서 스테디의 효용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세 과목 모두 2008년부터 직전까지의 기출문제를 2~3번 반복해 풀었고, 모강은 보통 강사별로 2, 3개년치를 구해 풀었습니다.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종종 하루에 5~6회씩 피셋만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자상 모두 32~36문제를 풀어서 맞추고 4~8문제는 찍는다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습니다.

(1) 헌법

1, 2년차에 핵심강의를 수강하며 기초 내용을 익히고 3년차 이후로는 기출문제집만을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기출문제 반복만으로도 내용을 리마인드할 수 있고 기출 선지에 익숙해지면 함정 포인트를 기계적으로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동사항은 모강과 강사들이 제공하는 최신판례를 정리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2) 언어논리

1년차에 기본강의로 감을 잡았고 2년차에

는 논리학 특강을 들으며 형식논리학 문제풀이 방식을 연습했습니다. 형식논리학은 논리 퀴즈 유형뿐만 아니라 강화·약화 유형이나 독해 문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언어논리에서는 문제 유형을 구분하기보다 발문을 주의깊게 읽고 지문에서 어떤 정보를 읽어내야 하는지 잘 판단하는 일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정답으로 고른 선지가 정답인 근거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선지가 오답인 근거를 찾는 것으로 정답률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영 모르겠어서 찍어야만 할 때에는 “이 선지가 정답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이의제기가 생길테니 오답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습니다.

언어논리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① 제시문 첫머리와 끝부분의 정보를 놓치는 것과 ② (특히 빈칸, 강화·약화 문제에서) 엉뚱한 키워드에 집착하는 것, ③ 제시된 여러 정보를 혼합해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처방안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항상 내가 이 실수들을 저지르고 있을거라는 의심을 하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험 전 날 문제를 풀 때 실수가 3번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시험 당일까지 그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3) 자료해석

1년차에 기본강의를 들은 이후로는 모강을 풀되 해설강의를 듣지 않고 스스로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2년차에는 비타민이나 계산훈련교재를 이용해 기초적인 계산능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제게 잘 맞는 몇 가지 계산 테크닉을 갖춘 이후로는 별도의 계산훈련은 하지 않았고, 선지가 요구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다만 계산을 굳이 회피한 것은 아니라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땐 계산을 했습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하면서 ① 사칙연산, ② 그래프 제목, ③ 표를 읽는 방향 등 여러가지 실수 포인트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실수들을 스크랩하여 저만의 오답노트를 만들었고 문제 유형을 분류하여 접근요령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수 여부를 기계적으로 검토하며 정답률을 높여나갔습니다.

자료해석은 다른 과목들보다 모강을 조금 더 많이 구해 풀었습니다. 같은 강사 모강을 반복해서 풀다보면 문제나 함정이 반복되는데, 여기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복잡한 데이터를 해석하는 훈련을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4) 상황판단

상황판단은 유형을 분류하여 문제를 풀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특히 퀴즈형 문제와 법조문 계산형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풀기로 했습니다. 퀴즈형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아예 못 풀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법조문을 주면서 숫자계산을 요구하는 유형은 대부분 4분 이상 시간을 잡아먹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틀린 이유는 대체로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했다.” 아니면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대처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법조문 문제에서는 보조선을 긋거나 주어, 서술어에 동그

라미를 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외의 문제들에서는 일단 넘어가기로 판단한 문제가 아닌 이상 다소 시간을 쓰더라도(2~3분) 정확하게 조건을 읽고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 2차시험 과목

수험생활이 길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묻는다면 기초를 등한시한 채 3순환 수업을 따라가는데 급급했던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2022년 시험을 포함해 매 해 중요했던 것은 대부분 예비·1순환에서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합격한 해에는 3순환에서 새로 배운 내용을 익히기보다 기본적인 내용을 답안에 써낼 분량으로 정리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했고 이것이 실제 시험에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1) 경제학

경제학은 문제가 어려워도 어떻게든 자기 논리를 수식으로 치환해 답안에 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시든 거시든 단순 계산능력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인 논리구조를 줄글의 형태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상 미적분을 배우지 않았던 관계로 처음 경제학을 공부할 땐 우선 미분부터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EBS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을 사서 풀기도 했는데 이걸 안 되겠다 싶어 포기하고 그냥 경제학 문제를 풀면서 미분 방법과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번째 시험을 준비하던 2020년에 들어서야 미분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경제학에 왜 쓰이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학 답안작성에 처음 숨통이 트인 것은 3년차에 들은 기출풀이 강의에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강사의 해설과 똑같은 답안을 써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답안지에 펜을 대는 일부터가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들으면서 예시답안과 조금 다른 목차와 그래프를 써내더라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후로 자신감이 붙어 제가 알고 있는 경제학 논리를 적극적으로 답안에 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답안이 작성되기 시작하니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점검하기가 편해졌습니다. 강사의 해설이나 최고답안이 어떤 논리를 따라 작성된 것인지도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소수 과외 형식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들으며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줄글 대신 수식으로 보여줘야 하는 데다가 한정된 페이지 내에 그래프까지 그려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보니 답안의 논리에 구멍이 생기기 쉬웠습니다. 2022년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념, 행동원리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목차로 잡아 차근차근 논리를 전개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2) 행정법

행시, 입시, 변시, 사시 기출문제를 풀었고 과외를 통해 단권화한 서브노트를 기반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2020년도 시험에서 두문자를 따 온전히 암기한 판례문구를 답안에 써냈으나 점수가 낮았던 경험이 있어 교재 문구를 그대로 암기하는 건 지양했습니다. 대신 여러 모범답안을 모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나 문장을 추출했습니다.

논점을 놓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발문으

로부터 역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문에서 간접강제 신청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문제는 ① 간접강제 신청이 인용되려면 간접강제가 가능해야 한다 ② 간접강제가 가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③ 첫 번째 조건은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확정이고, 제시문에서 제1차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충족된다. ④ 두 번째 조건은 재처분의무의 불이행이고, 검토가 필요하다. ⑤ 제2차 거부처분이 재처분의무의 불이행이라면 일단 재처분의무가 있어야 한다. ⑥ 재처분 의무가 있으려면 거부처분 인용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와 같은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답안에는 ① 처분의 법적성질 논의 ② 기속력 일반론과 재처분의무 이행여부 판단 ③ 간접강제 신청 인용여부 판단을 목차화했습니다.

행정법 고득점에는 항상 실패했는데 돌이켜 보면 그 이유는 논리 부실에도 있겠지만 득점 가능한 다양한 내용들을 충분히 짚어주지 않았던 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합격 후 고득점자들과 비교해 보니 저는 학설을 비교적 짧고 적게 서술한 편이었고 “검토의견은 A이나 이리저리한 논리에 따라 B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와 같이 여러가지 시각을 검토하는 서술도 부족했습니다.

(3) 행정학

2005년부터 최근까지의 기출문제를 모두 공부했습니다. 2022년 시험을 대비하면서는 개념과 특징, 장단점을 기계적으로 써낼수 있도록 암기했고 행정학 이론별로 논리구조와 키워드를 빠짐없이 적어낼 수 있도록 목차화

하거나 답안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간 모은 사례들은 답안에 써낼 분량으로 간략히 정리해 각종 개념에 매칭시켜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각론에서 배우는 제도와 이론을 총론에서의 사례로 연결해 총론과 각론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합격한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짚을 날리듯이 최대한 많은 소목차를 구성해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학 고득점에 유리하다는 것이며, 저도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2021년 시험을 볼 때까지는 설문 간 논리구조를 답안에 반영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항상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전략을 바꾸어 설문 간 연계를 포기하는 대신 최대한 많은 내용을 소목차로 만들어 짧게 많이 제시하는 답안을 쓰내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1문 설문2)와 3)에서 소목차를 5, 6개씩 제시하고, 2문에서는 ①, ②를 활용해 근거를 세분화하여 제시했고 합격자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3순환 최고답안 중 롤모델로 삼고 싶은 답안들을 필사하며 압축적으로 문장 쓰는 방법을 따라했는데 이러한 연습도 답안 개선 및 고득점에 기여한 것 같습니다.

(4) 정치학

정치학은 3순환 전에 미리 공부를 할 필요성이 다른 과목에 비해 큰 것 같습니다. 논문, 각종 모의고사 등으로 자료가 쏟아지면 필요한 정보만 정리하는데 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험 일정에 따라서는 정치학과 선택과목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부담이 한층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 시험을 대비하면서 시중에 나온 수험서를 모두 모아 하나의 교재에 내용을 단권화하고, 신명순·진영재 교수님의 「비교정치」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전공 교수진의 「정치학의 이해」를 훑으며 빠진 내용을 보충했습니다. 국제정치학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위주로 이론을 분류하여 암기했습니다. 각 이론이 설명하려는 현상, 전제조건, 사용하는 개념을 정리해서 답안에 써낼 정도의 분량으로 만들었습니다.

답안작성은 구조화와 설문 간 연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목적은 II번 목차에서 사용한 개념, 범주화, 논리를 III, IV 목차에서도 활용해 채점자로 하여금 하나의 완성된 글을 읽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강의를 들을 때는 좀처럼 감이 잡히지 않아 답답했는데 정치학 단행본과 논문을 읽으면서 조금씩 해소되었던 것 같습니다. 단행본은 진영재 교수님의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와 21세기 정치연구회의 「정치학으로의 산책」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이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순서로 논리를 전개하며 어떻게 사례를 제시하는지 살펴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5) 정책학

5번의 시험 모두 정책학을 선택했습니다. 정책학은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서 양이 많은 편이지만, 감당 못 할 수준은 아니며 오히려 한정적인 편입니다. 남궁근 교수님과 정정길 교수님의 교과서만으로 모든 범위가 커버되는데 두 교과서가 많은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사실상 교과서 한 권으로 끝나는 정도입니다. 내용도 쉽고, 해마다 바뀌는 내용도 없고,

2010년 이후로는 문제 형태가 매우 단순해졌기 때문에 암기만 잘 해두면 못 풀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행정학에서 배운 내용을 연계해서 쓰거나 정책학에서 배운 내용을 행정학 답안에 활용하기 용이하다는 것도 소소한 장점입니다. 행정학과 마찬가지로 정책학도 소목차를 세분화하여 여러가지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3순환 수업을 들으며 개념별로 꼭 드러내야 하는 키워드나 표현을 준비했고 이를 암기해 답안지에 현출했습니다.

IV. 짧은 생각

1. 운동

저는 수험기간 동안 꾸준히 일주일에 2~3회는 헬스장에 가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신체 컨디션이 좋으면 집중력도 좋아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격하신 분들 중에는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운동을 한 번 해보고 공부에 도움이 되면 계속하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억지로 하지는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스터디

저는 스터디의 효용을 톡톡히 보았기 때문에 스터디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스터디원과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니, 그저 제가 인복이 좋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필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어떤 이유로든 결석을 하지 않고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 있다면 함께 공부했을 때 좋은 점이 많을 것입니다.

3. 서브노트

3년차까지 열심히 서브노트를 만들었으나 결국 모두 버리고 다른 사람이 만든 서브노트 또는 강사 교재를 활용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서브노트에는 쓸모없는 내용과 오류가 많아 답안작성에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브노트를 직접 만들어 공부하고 합격한 분들도 많으니 서브노트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서브노트를 만드신다면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짧고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 답안에 써낼 수 있는 문장을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V. 맺음말

백 명의 합격생이 있으면 백 가지 공부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공부방법을 취하든지 중요한 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 뿐이고 그 결과는 하늘(교수님)이 정한다는 생각으로 “되겠지!”하며 수험생활을 견뎌왔습니다. 이런 태도가 합격을 할 때까지 두려움을 떨쳐내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기를 읽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둠 속을 걷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할 때, 마음 한구석 어디선가 갑자기 따뜻한 자신감이 솟아나 합격으로 향하는 길을 밝게 비춰주기를 기원합니다.